
혁명검찰론=이단심문론에 대해 : 소설 『화두』와 『광장』의 적론(敵論)을 위하여

윤인로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목 차〉

- I. 서론: '자아비판회'의 자기통치론
- II. 섭리적 질서 속에서의 혁명수호: 돌이면서 하나인 '로마 교황'과 '시골 이단심문관'
- III. 최인훈의 (적)그리스도론
- IV. 결론: "하나됨과 둘됨 사이의 평형" 혹은 질서의 적(敵)을 억지하는 힘의 형태

국문초록

이 글은 최인훈의 청소년기 북한 경험을 통해 그의 신정정치론(즉 '정치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의 합성론)을 검토해 본 것이다. 북한에서의 '자아비판회' 경험의 강제성과 그것에 대한 자발적 복종을 검토하면서(1장), 최인훈의 혁명검찰론=이단심문론이 갖는 정치적=신학적 맥락을 분석했다(2장). 그런 탈경계적 맥락을 최인훈 문학의 끝과 시작인 『화두』와 『광장』을 관통하는 문제로서 '거짓 그리스도(적그리스도)'에 대한 비판으로 달리 제시했다(3장). 그런 비판의 근원에 놓인 것으로서, 최인훈이 말하는 신과 사도, 왕과 신하, 교황과 이단심문관, 선생과 제자, 사령관과 병사 같은 구분된 이항들의 돌이면서도 하나인 관계를 이접적(離接的)—분리와 접합이 동시에 관철되는—평형운동의 관점에서 분석했다(4장).

주제어: 자아비판회, 풍문, 메시아-공산주의, 적(敵)그리스도, 스탈린-교황, 심판의 날

1. 서론: '자아비판회'의 자기통치론

최인훈 문학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저류, 그 저변에서의 의미 구성을 건드리고 지나가는 지속적인 접선이라는 것이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다시 묻자면, 이른바 '남북조 시대'의 작가로서 최인훈이 가진 정치적 무의식 혹은 의식적 정치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떤 형질을 띠고 있는가. 북조선 회령과 원산('H'와 'W'라는 이니셜로 표시되던 장소)에서의 청소년기 경험, 그 중에서도 소부르주아 계급의 아들이라는 암묵적 죄목으로 원산의 중학교에서 경험했던 '자아비판회'는 최인훈의 생애와 문학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듯하다. 자아비판회의 현장과 그것에 대한 최인훈의 정치적 성찰에 좀 더 깊이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¹⁾ 방과 후의 교실에서 밤까지 이어졌던 그 자아비판회의 주재자는 "지도원 선생"으로 명명된 젊은이였다: "그는 국어 선생이었다. [...] 그러나 그는 혁명검찰관이기도 했다. 학교라는 사상교육의 마당에서 혁명을 지키는 파수꾼이었다."²⁾ 지도원 선생은 공화국의 미래와 미래의 공화국을 위한 혁명의 수호자로서, 혁명적 역사를 보장하고 추동하는 진리의 체현자로서 교실 뒤쪽·후위에 앉아 있었다. 그와 그의 앞줄

- 1) '자아비판회'의 법적인 의미성분에 초점이 맞춰진 선행연구로는 김윤식의 것이 있다. "재판받기", '자아비판' 또는 '심판으로 요약되는 것. '동무는 공화국의 미래를 짊어질 영광스러운 소년단원으로서 지금 어떤 각오를 다지게 됩니까.'(『화두』 I부, 35쪽) / 자아비판, 재판받기, 심판 등이야말로 최인훈 문학의 또다른 고유성이지요. 제가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자아비판에 대한 정신적 상처(trauma)입니다."(김윤식, 『최인훈론: 유죄 판결과 결백 증명의 내력——장편소설 『화두』, 『작가와와 대화』, 문학동네, 1996, 24쪽) 이 시사적인 문제설정이 '트라우마'로 환원되지 않는 지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그런 출발을 법적인·신학적인 질서화에 대한 최인훈의 형상화작업 속에서 시도해 보고자 한다.
- 2) 최인훈, 『화두』 1권, 문학과지성사, 2008, 46쪽. 이 자아비판의 형식과 관련된 논문으로는 조시정,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러시아-소련 경험: 『화두』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문화』 10집,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2011, 211~247쪽을 참조. 더불어, 자아비판회의 모델로서의 소련 체제 혹은 그 체제의 붕괴와 최인훈 문학의 연관에 집중한 논문으로는 손유경, 「혁명과 문장」, 『민족문학사연구』 63집, 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323~347쪽을 참조. 최인훈의 '문학과 정치'가 지닌 의미의 분포를 넓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논문으로는 차미령,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정치성의 의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2010을 참조.

에 앉은 학급간부들과 그들 모두를 마주보고 교단에 선 최인훈으로 이뤄진 그 밤의 교실 속 자아비판회란, 혁명을 수호하는 진리의 발현과정을 집약하는 축도^{綱圖}이자 그 진리의 빛·검찰에 따라 자타 모두가 일찌감치 승인하게 되는 항소불가능한 유죄판결의 법정이었다. 그 법정의 무대로부터 비롯되는 최인훈적 통치론의 형질, 자아비판회라는 이름의 혁명재판정으로 구축되고 있는 통치관계가 관건이다.

i) ‘자아비판회’는 인민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법기관이고 수사기관이고 집행기관이고 고해성사실이고 밀고실이었는데, 거기서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법적으로 유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무한 권한으로 수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결정은 집행될 수도 있고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고해성사는 지극히 높고 깊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말장난에 그칠 수도 있었다.

ii) 나는 이 의식^{儀式} 속의 재판에서 묘하게 처신하였다. 나는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는가 하면, 자신을 단죄하기도 하였다. 나의 ‘자아’를 지키려고 하는가 하면, 나의 ‘자아’를 그들이 요구하는 ‘자아’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검찰관을 되받아치는가 하면, 검찰관을 웃돌아 나 자신에 대한 검찰관이 되려고 하였다. 야릇한 재판이었다.³⁾

사법적 힘인 동시에 내면적 신앙의 상태를 듣는 성사^{聖事}의 힘, 달리 말해 법적·신학적 질서화의 합작 공정, 법치적-내면관리적 폴리차이(경찰/내치)의 임의집행. 그것이 자아비판회에 응집된 혁명수호의 방법인바, 이로써 피고는 분열증 환자처럼, 혹은 모종의 제의·의식에 들린 사람처럼 말하게 되고 행하게 된다. 그같은 질서화의 방법, 혁명수호의 폭(권·위)력은 이른바 통치합리성을 초과할 때에, 예컨대 필요에 따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남으로써 기존의 법적 경계를 무효화할 수도 있을 때에, 수사집행을 인과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이 되게 할

3) i) 최인훈, 위의 책, 49쪽. ii) 최인훈, 『화두』 2권, 문학과학사, 2008, 85쪽.

수도 있을 때에, 신앙 속에서 내면을 고백하는 일이 하나하나한 짓이 되게 할 수도 있을 때에 스스로를 ‘무한’한 것으로 보전·발현시킬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임의재량적-마성적 애매모호성, 그것이 자아비판회가 표시하는 최고도 통치력의 구성원리이다. 그렇게 혁명정부가 보위되는바, 그 과정은 인민에게 잠정적인 피고로서의 품성과 행실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공정과 맞물려있다. 그런 과정-공정에 합성·투하되고 있는, 필요에 따른 법적-신학적 임의성과 모호성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톱니의 기계적 기능 단위가 저 지도원 선생이라고 할 때, 그는 이후 최인훈에 의해 도스토옙스키(특히 『죄와 벌』)의 인물과 견주어진다. 그렇게 지도원 선생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힘에 밀려서 움직이고 있다.”⁴⁾ 혁명검찰관으로서의 지도원을 침윤시키고 들리게 하는 그 불가해한(마력적이므로 모호한) 힘의 자장 안에, 혁명수호라는 이름의 진리-정당화의 폭(권·위)력 앞에 자아비판하는 피고의 노예적 분열이 있다. 피고(중학생 최인훈)의 자기 인식은 오직 혁명검찰관(지도원 선생)을 주인 기표의 자리에 온존시키는 경로를 따라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피고는 혁명검찰관에게 주박 들려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혁명검찰관을 주박 들리게 한 진리-정당화의 레벨에 주박 들려있다는 뜻이다. 그 진리-권위의 작위적 레벨에 자연스레 광합성하게 되는 피고란, 그 권위·빛·광의 레벨에 의해 비취지거나 비취지지 않는 자기, 무죄라고 변론하거나 유죄라고 정죄하는 자기, 모호한-유령적인 검찰관을 꺾기 위해 그를 공박하거나 그의 기소 의견을 초과하여 더 철저히 스스로를 기소하는 자기, 그런 자기들의 폐쇄회로를 생각과 행동의 최대치로 설정하고 그 안에 스스로를 수감시킨다는 뜻에서의 피고이다. 자아비판회의 끝에서 요컨대, 스스로를 알아서 기소조치-유죄 처분하려는 자기. 그것은 혁명수호라는 이름의 정당화 레벨과 맞물린 결정 레벨의 한 가지 형태를, 혹은 혁명재판의 정통성 레벨과 맞물려 돌아가는 인민의 자발적 동의상태를 표시한다. 그런 한에서 그들 자기-자기들로 이뤄진 북조선 “김일성 천황”⁵⁾의 국체, 북조선이라는 공

4) 최인훈, 『화두』 1권, 60쪽.

5) 崔仁勳, 『總督의 소리 II』, 『월간 중앙』 1968년 4월호, 413쪽.

화국체의 작동 혹은 신진대사를 가능케 하는 각각의 자기·자기들·세포들이 다음과 같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그것은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 “서로가 서로의 피고가 되었다가, 고발자가 되었다가, 검찰관이 되었다가, 재판장이 되었다가, 고문 형리가 되었다가 해야 했다. 공화국의 공민이 된다는 것은 꽤나 바쁜 사업이었다.”⁶⁾

II. 섭리적 질서 속에서의 혁명수호: 돌이면서 하나인 ‘로마 교황’과 ‘시골 이단심문관’

피고 혹은 유형수^{流刑囚}로서의 최인훈은 도스토옙스키에게 선고된 사형의 집행유예상태에 스스로를 겹쳐보면서, 자신에게 선고된 그 밤의 유죄판결에 대해 오래도록 숙고하게 된다. 예컨대 그런 숙고는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 상황과 관련해선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신성권력’의 이름으로 행해진 ‘추방’.” 이는 추방의 법적 공포 속에서 행해지게 되는 자기 단죄의 고해성사를, 그런 한에서 (청죄^{聽罪})사제적 권력에의 “주박 들림”을, “신성동맹”의 체제에 의한 정신의 포박상태를 표시한다.⁷⁾ 저 자아비판회의 교실 안에서 선고된, “혁명재판소”의 축도 안에서 가동되는 i) 유죄판결과 ii) 유예된 집행과 iii) 잠정적이고 임의적인 추방/주박의 회로는 신성권력의 체제를 수호하는 힘의 다른 이름, 곧 “이단심문소”의 판결과 상보적인 기능연관을 이룬다. 혁명재판의 운용·원리는 이단심문을 통해 다시 정의될 수 있는바, 혁명재판은 속화된 이단심문이다.

모든 곳에서처럼 이런 곳[=자아비판회]에서도 스페인의 시골구석 이단심문소의 담당 승려는 자신을 로마에 있는 교황과 구별하지 못하였다. 그럴 것이었다. 그 순간에 증개인이지만 피조물인 승려의 육체가 스페인의 촌구

6) 최인훈, 『화두』 1권, 49쪽.

7) 최인훈, 『화두』 2권, 132쪽.

석과 로마에 갈라져 있을 뿐 하나이신 신은 그 두 곳 모두에 꼭 같이 임하는 신이었기 때문이다.⁸⁾

반동적 아나키·이단을 추방하는 굿·푸닥거리로서의 경찰/내치, 그런 질서화의 굿판을 통한 주술제의적 포박(주박 들림).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이단심문을 행하는 시골 사제, 예컨대 원산의 지도원 선생이 로마 교황, 예컨대 모스크바의 “스탈린이라는 교황”⁹⁾과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 그같은 이/접^{離/接[분리접합]}의 상태가 혁명재판으로서의 이단심문의 형식을 이룬다는 점이다. 육화의 육신적 한계를 벗어나 있는 신의 두 분신^{分身}이라는 점에서, 분유^{分有}되어 있는 신의 두 신체라는 점에서, 그렇게 신 아래 신과 한 몸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의 질서화하는 섭리를 매개·중개·대행한다는 점에서 시골 이단심문관과 로마 교황은 분리된 두 신체인 동시에 한 몸이다. 그 두 신체들 각각이 신과 맺는 이위일체적 관계 속에서 “신의 섭리”는 어디든 편재^{遍在}하게 되고 언제든 대행될 수 있는 질서화의 힘으로, 힘의 질서화상태로 발현한다. 그렇게 베풀어지는 섭리적 질서 아래의 인민은 다음과 같이 상호작용한다: “서로가 서로의 타락을 막아주고, 역사의 신으로부터 징벌을 받지 않게 도와주어야 했다. 그것이 동지끼리의 사랑이었다.”¹⁰⁾ 그 사랑의 역사^{役事/歷史}를 이루는 것이

8) 최인훈, 『화두』 1권, 47쪽. 이에 관해 언급하기 전에, 이 한 대목과 관련된 의미의 연계망 일부를 제시해 놓고자 한다. 예컨대 저 『광장』의 이명준이 했던 말은 앞질러 인용될 필요가 있다: “신(神),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만사가 무의미하다.”(崔仁勳, 『廣場』, 정향사, 1961, 32쪽) 한반도 지하에 숨어든 총독의 라디오 방송으로 전파되는 말은 그런 신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 일부를 보여준다. “관념을 행동으로 극복하여 실재에 유착시키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며 그러므로 이 육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천 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최인훈, 「總督의 소리 3」, 『창작과비평』 1968년 겨울호, 627쪽). 이는 이후 본문에서 다룰 ‘그리스도교와 스탈린주의’에 관한 이명준의 유비, 그가 인용한 바울의 「고린도후서」 속의 ‘그리스도의 거짓 일꾼’과 연동되어 있다. 혁명검찰관과 이단심문관의 유비, 혹은 정치의 원천으로서의 신학이라는 테제를 앞질러 제시한 이는 헌법학자 갈 슈미트였다: “현대 국가론의 중요 개념은 모두 세속화된 신학 개념이다.”(갈 슈미트, 『정치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김항 옮김, 그린비, 2010, 54쪽)

9) 최인훈, 『화두』 2권, 306쪽.

10) 최인훈, 『화두』 1권, 49쪽.

잠정적 피고로서의 품성과 품행인바, 다시 말하건대 그것은 서로 간에 고발자·검찰관·재판장이 되는 일, 타인보다 더욱 엄격히 스스로를 기소·감찰·판결하는 일, 자기구성적 죄의 연관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길을 잃은 양/떼로서 그런 타락(아나키·적성^{敵性})을 억지하는 사제적·이위일체적 힘의 인도를 따르는 일이다. 동지와 적 사이의 경계선에서 이뤄지는 그런 일들이 유지되는 동안만큼은, 저 ‘역사의 신’ 앞에서(그 무한한 신적인 법정 앞에서) 죄와 벌은 면제될 것이었다.

혁명재판=이단심문은 그 밑바탕에서 “‘역사’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는”, 그렇기에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힘’”이며, “거스르는 것이 부끄러운 ‘명분’의 깃발”¹¹⁾에 의해 보장되는, 그같은 명분·정통성 레벨의 연관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만 체제의 보위를 행할 수 있게 되는 집행·결정 레벨의 연관이다. 그렇기에 “현존하는 권력은 마치 신학상의 섭리에 맞먹는 논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느바, 신의 질서화하는 섭리·안배는 필요에 따라 공개되거나 비밀화됨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정통성의 기반이 된다. 그런 공개와 비밀화의 변증 속에서 “지도원 선생의 정당성에 대한 정확한 판정은 그 자신에 대해서도 미정이고, 그의 확대된 모습인 더 큰 권력에 대해서도 미정인”¹²⁾바, 지도원 선생에 의한 혁명재판=이단심문의 집행결정을 보장하는 정당성에 대한 판정이 미결정 상태에 있다는 것은, i) 지배의 불완전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신의 섭리적 섭정에 대한 판정의 불가능성을, ii) 숨은 신이라는 정당성·정통성 레벨의 무궁극성을, iii) 그런 한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결정 레벨과 정통성 레벨 간의 이접상태를 뜻한다. 그 속에서만이 혁명재판=이단심문은 임의적이므로 항시적인 법정이자 정치적·신학적 법권^{法權/法圈}일 수 있게 된다. 이는 자기가 자기를 피고로 판결할 때의 그 ‘죄’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렇다는 것은 그 죄에 연동

11) 최인훈, 위의 책, 77쪽.

12) 최인훈, 『화두』 2권, 97쪽. 이 공개와 비밀 간의 배합은 최인훈에 의해 유비되는 한 짝, 곧 국가의 지배와 신의 섭리가 맺는 관계로서 제시되느바, 그런 공개와 비밀, 결정의 공개와 미결의 비밀이 맺는 관계를 조절하면서 주권적 권력자로의 접속거라통로를 독점하는 힘의 형태를 달리 일컫는 개념이 ‘간접권력potestas indirecta’이다.

된 ‘적^敵’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충성’과 ‘반역’, 신앙과 이단 간의 경계조절적 관계에 따른 죄와 적의 문제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대의에 대해 검찰관과 재판관이 지니고 있는 충성이 엄청난 것이라면, 그 정도만큼 피고는 엄청난 태만분자며 반역자며, 결과적으로 적을 위한 스파이가 된다. 아니, 나는 스파이인줄조차 몰랐다. 몰랐기 때문에 내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되레 그 몰랐다는 일이 나의 죄의 증거가 된다. 나는 자신에게조차 내 죄를 숨겼던 것이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이 적을 숨겨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나는 이중으로 적에게 봉사하였다. 첫째로 적으로서 인민을 해쳤으며, 그 적을 숨겨주고 있는 자로서 인민에 반역^[역사에 반역]하였다. 내 기술이 너무 교묘하였기 때문에 나는 인민을 해치기 위한 더욱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¹³⁾

혁명의, 혁명이라는, 혁명적인 대의가 그것을 둘러싼 검찰관과 피고 간의 충성경쟁을 통해 사후적으로 구성되고 보위되는 과정. 그런 경쟁이란 잠정적 피고로서의 자기 속에 있는 반역적·이단적 계기들을 혁명 검찰관=이단심문관보다 더욱 철저히 발본색원하려는 자발적인 의지로 추동되는 것인 동시에 그런 개별의지를 혁명체제의 정통성을 향한 전체적 충성·신앙의 제1방법이 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속에서 피고의 죄는 적에 봉사하는 스파이의 반역죄라는 단순한 논리 지평 너머에서 구성되는바, 자신이 스파이라는 자각마저도 없게 되는, 자신이 스파이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한 경지에서 이뤄지는 반역의 죄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각 없음과 망각을 따라 자기 내부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으로서의 자신이 완전히 감춰지게 되며, 비밀리에 행해졌던 것이 될 그같은 최고도의 자기 적화^{敵化}야말로 투철하고도 교묘한 반역의 의지로서, 오직 자기만이 적발하고 기소·판결할 수 있는 정치적 죄의 척도를, 자기만이 고해하고 참회·회심할 수 있는 신성모독적 유죄

13) 최인훈, 『화두』 2권, 124~125쪽.

구성의 준칙을 표시해준다. 자기 바깥의 혁명검찰관에 의해서는 근절될 수 없는, 오직 자기 스스로가 혁명검찰관=이단심문관이 될 때만이 온전히 억지될 수 있는 아나키·적. 이 적·아나키를 자기 속에 숨겼을 그때 자신은 적과 내통하면서 공화국·수령·인민을 거슬러 반역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그 숨김의 사실을 망각하고 있을 그때 자신은 적과 한 몸이 된 채로 저 역사의 신·섭리를 모독하고 있는 것이었다.

바로 그렇게 증첩된 모호한 적, 비밀화된 그 적성 및 적화의 상태에서 아나키는 발아하고 발흥하는바, 원산의 한 중학교 교실을 그같은 적의 짝을 제거하는 재판정으로 삼았던 지도원 선생에 대해 장성한 학생 최인훈은 이렇게 논박한다: “선생님은 저를 인민의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 당신은 공화국의 벼를 만들어내는 것이 임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의 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있지도 않은 적을 말입니다.” 이에 대한 지도원의 반문과 최인훈의 응답이 뒤이어진다. “벼가 아니면 적일 것이 아닌가? / 당신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십니다. 벼도 적도 아닐 수 있습니다. /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 / 피교육자입니다. 아이들입니다. [...] 피교육자는 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권리를 갖습니다.”¹⁴⁾ 적을 둘러싼 이 문답의 심층이 드러나는 것은 아이를 혁명의 비유로 입을 때이다. 최인훈은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기대어, 겉으로는 어엿한 여관 주인이지만 실제로는 도둑·협박범·인신매매범·사기꾼인 테나르디에 부부의 손에 맡겨져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 코제트를, 곧 비참한 여인 팡틴이 생계 때문에 그들 부부에게 울면서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 딸아이를 혁명이 처한 상황의 비유로 삼는다. 친구도 아니며 적도 아닌 아이, ‘벼 아니면 적’의 논리 바깥에서 그 이항의 임의적 경계획정 상태를 주시하게 하는 아이=혁명이 바로 그런 코제트의 지경에 빠져 있으며, 원산의 피교육자·아이 최인훈 역시 검찰관이 신앙하는 혁명수호의 이름 아래에서 그 혁명과 함께 그같은 사경에 빠져 있었다. 달리 말하자

14) 최인훈, 위의 책, 148~149쪽.

면 법의 사멸 혹은 적의 소멸이라는 혁명의 진정한 비상상태, 그런 혁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상태를 향해 혁명의 기관차는 전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아이’는 튼튼히 자라고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혁명=아이를 인질로 잡고선 혁명의 공익 혹은 몸값을 갈취하고 있는 테나르디에=지도원.

그들의 그런 말들을 더 투철하게 믿고 실제로 더 밀고 나가려는 팡틴과 중학생 최인훈, 그런 상태가 저 자아비판회에서의 심성 회로와 동질적인 것임을 다음 한 대목이 달리 표현한다: “상대방에게 완전히 이기기 위해 완전한 공정성을 실천하는 검객처럼, 상대방의 논리 구축에 힘을 보태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 그 귀여운 것을 제 손으로 키우지 못하는 코제트의 엄마처럼. 혁명은 잘 자라고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코제트는 한창 예쁩니다. 나날이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저 가벼운 감기, 걱정 마십시오. 데날디에의 편지를 한없이 믿고 싶은 코제트의 엄마처럼. 공장 생활이 어려울수록, 자신의 병이 깊어질수록, 남의 손에 맡긴 코제트의 행복을 믿고 싶다. / 그런데, 코제트는 건강한가? 살아 있기는 한가?”¹⁵⁾ 엄마 팡틴의 그 불가항력적인 믿음, 코제트·아이·혁명의 건강과 행복을 보육자·혁명수호자의 말보다 더 확고히 믿으려는 그 불가피한 신앙 속에서 코제트·아이·혁명은 한층 더한 노예로서 착취당하게 된다. 그런 한에서 팡틴과 최인훈은 테나르디에=지도원이 말하는 보육과 보호의 체제 속에 여전히 주박 들려있으며, 그들과 동질적인 말의 회로를 그들과 더불어 /경쟁적으로 가동시키면서, 그들과 다름 아닌 한 몸이 된다. 그런 일체화 상태 속에서 아이=혁명을 돌보고 성장시키려는 ‘자기 손’과 혁명=아이를 인질로 삼는 ‘남의 손’이라는 구분은 서로 다른 두 손의 대립적 마찰이 아닌, 두 손인 동시에 한 손인 상태로 조절되고 배합되는, 다르되 상보적인 두 기능을 표시한다. 자기 손과 남의 손의 그같은 이접상태 속에서 현행 체제는 보위되는바, 그런 상태·과정은 저 혁명검

15) 최인훈, 위의 책, 98쪽.

찰관=이단심문관에겐 역사를 주재하는 신의 손, 그 보이지 않는 손/섭리가 대행되고 있는 현상형태로 자리매김될 것이다.¹⁶⁾

Ⅲ. 최인훈의 (적)그리스도론

자아비판회의 주관자, 지도원이라는 적의 특질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섭리의 터춧대감의 말을 옮기는 무당=지도원, 그는 나의 천적이었다.”¹⁷⁾ 그가 섬기는, 그가 봉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산주의라는 역사의 섭리, 인민의 행복과 구제가 관철되도록 일하게 하는 커뮤니티라는 신의 사역^{使役}이 그것이다. 그같은 신적인 섭리사역의 일환으로 대행되고 있는 일이 아나키를 푸닥거리하는 곳, 이단을 적발하는 심문이다. 그 곳판의 무당, 그 시골 심문소의 사제가 지도원인바, 그가 최인훈의 천적^{天敵}인 것은 그 적이 천상의 목소리와 신성의 업무를 땅위에서 대언하며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신 발화되고 있는 말, 신의 그 구원적인 말씀·로고스의 대언·대리상태를 문제시하는 다른 말이 있다. 적을 천적으로서 정확히 적대시하기 위한 최인훈의 용어, ‘풍문’이 곧 그것이다.

i) <메시아>가 왔다는 이천년래의 풍문(風聞)이 있습니다. 신(神)이 죽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신이 부활했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커뮤니티즘

16) 절대적 신앙의 대상인 신의 손, 그 섭리의 베풀어짐을 대행하는 ‘남의 손’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과정이라는 구체적 맥락에서 다시 제시된다. 그것 역시 『레 미제라블』에 기대어 있다. “여관[소련] 주인 고르비에[고르바초프]는 자기 여관에 투숙했다가 급한 병으로 죽은 장발장으로부터 재산의 관리와 꼬제슈카[아이=혁명]의 장래를 부탁받지만, 재산만 횡령하고 꼬제슈카를 찾지 않는다. 동업자의 횡재를 눈치 챈 엘치에 여관 주인 엘치에[엘친] 부부는 고르비에를 협박하여 장발장의 유산을 빼앗고 고르비에 여관까지 빼앗는다. 가혹한 노동에 시달린 꼬제슈카는 엘치에 부부의 손으로 국제 마피아[이른바 ‘서방 세계’]에게 인도되어 인육시장의 바다 속에 행방불명된다. / 「어떤 레미제라블」에서.”(최인훈, 위의 책, 373쪽)

17) 최인훈, 『화두』 1권, 80쪽.

이 세계를 구하리라는 풍문도 있었습니다. [...] 인생을 풍문 들듯 산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ii) 왜 이렇게 됐을까. 북조선에는 혁명이 없었던 탓일 것 같았다. 인민 정권은 인민의 망치와 낫이 피로 물들어지며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전세계 약소 민족의 해방자이며 영원한 벗’인 붉은 군대가 가져다 준 ‘선물’이었다. [...] 그들은 혁명의 풍문만 들었을 뿐이다. 30년 전에 흥분이 있었다는 풍문을 듣고 흥분할 수 있다면, 그는 감정의 천재다.¹⁸⁾

풍문 속의 삶, 풍문에 기댄 생명이란 비참해지는 사람들^[데 미제라블], 끝내 자기 스스로를 기소하게 될 사람들, 저 자아비판회에 연루되어 있는 인민을 달리 일컫는 말이다. 풍문 속에서 안전하게, 안전한 선물로서 가^假체험했을 뿐인 혁명과 그들 인민의 관계가 문제시된다. 그런 풍문 속의 혁명에 만족할 때 체제 속의 인민은 일반화된 자아비판회(혁명재판소=이단심문소)의 자발적·초과적 유죄구성상태에 주박 들러 있게 된다. 그렇게 코뮤니스트들의 유일정당에 의한 지도·인도·사려·결정·수정 속에서 “인민은 무관심할 뿐”이며, “긋만 보고 있”고, “양떼들 처럼 끌려 다니”며, “앵무새처럼 구호를 외칠 뿐”이다.¹⁹⁾ 공산당 일당과 인민 간에 나누어진^[분리/분담된] 그같은 배역·배분·안배상태는 “위에서 아래로, 공문^{公文}으로 시달된 혁명”²⁰⁾에 따른 필연적 귀결점인바, 그것은 혁명검찰관=이단심문관으로서의 코뮤니스트들의 철석같은 믿음, 즉 혁명을 다름 아닌 ‘자기 손’으로 행하고 있다는 자기 신앙의 철저한

18) i) 崔仁勳, 「작자의 말」, 『廣場』, 1쪽(이는 1960년 10월 『새벽』에 수록된 판본의 서문이다. 이 1961년판에는 괄호 속 한자표기와 한자 전면표기가 혼재되어 있다. 각각을 필요에 따라 살려 인용할 때는, 괄호 속 한자의 경우엔 윗글자로 작게, 한자표기의 경우엔 대괄호 속에 한글을 노출시키기로 함. 기호 및 표기법은 현대 국어문법에 맞춰 인용함).

ii) 최인훈, 『廣場』, 153쪽.

19) 최인훈, 위의 책, 131쪽. ‘양떼들은 전집판 1권(『광장 / 구운몽』, 문학과지성사, 1976, 105쪽)에 추가되어 있는 것임. 이하 ‘전집판’이란 이 1976년판을 가리킴.

20) 최인훈, 위의 책, 153쪽.

배반상태에 근거해 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손이란, 실은 자기 스스로와 구분하지 못하는—둘이면서도 하나라고 생각하는—남의 손(스탈린 교황의 손)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약소민족의 해방자이며 영원한 벗’ 역시도 ‘남’일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좀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로서, 그런 사정은 “그리스도교인에게 성경이 비록 신이 보낸 말일지라도 ‘남’이 보낸 말이고 보면 자기를 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죽음보다 두려운 것과 마찬가지로”²¹⁾의 일이었다. 받아들이면 안 될 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해선 안 될 것을 생각하는 일은 혁명공화국과 기독교 신앙체계 모두로부터 용인될 수 없는 아나키의 죄이다. ‘신’이 파송한 말, 신이 육화된 그 말씀·로고스, 그 구원적 로고스=그리스도는 세계를 구원하리라는 공산주의와 풍문 속에서 동질적이며 동형적이다. 왜냐하면 그 풍문 속에 메시아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기 때문이며, “신의 재림이 이 천년 동안 연기되어 온 것처럼, 공산 낙원의 재현은 삼십년 동안 연기되어 왔”²²⁾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메시아의 도래를 무르익지 않은 것으로, 아직 ‘때가 아닌’ 것으로, 현존 질서에 대한 아나키적 혼돈으로 간주하면서 오직 풍문 속에 예방구금해 놓은 카테콘적 공산주의의 폭(권·위)력과 레닌 이후 30년간 코뮤니즘의 해방세계를 대리보충해 왔던 모조구원적인, 일국^{一國} 메시아주의적인, 적그리스도적인 힘은 서로 합치되고 합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광장』 속에 우연히(우연을 가장하여) 인용되고 있는 바울의 편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의 한 구절 ‘그리스도의 거짓 일꾼’²³⁾—달리 말해 그리스도의 거짓 일꾼, 적그리스도의 일꾼—

21) 최인훈, 『광장』(전집판), 123쪽. 이 전집판에서 직접 인용한 것은 1961년판에는 없는 문장들임.

22) 최인훈, 『廣場』, 190쪽.

23) 이명준이 인용하고 있는 바울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 고린도 후서 十一, 三”(최인훈, 위의 책, 42쪽. 이는 『개역한글판』에서의 인용이다) 정확하게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이며, 그 의미는 11장 13절에

이 다름 아닌 저 지도원(혁명검찰관=이단심문관)과도 다르지 않다는 점, 그와 이접되고 있는 로마 교황(스탈린 교황)과도 먼 거리에 있지 않다는 점을 통해서도 달리 표시된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려진 바울이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거짓말을, 이른바 ‘거짓 사도들’의 가장된 말을 공박하고 있는 것처럼, 『광장』의 이명준에게 시골 사제로서의 지도원과 로마 교황으로서의 스탈린은 “신의 문서를 보고 온 사람들처럼”²⁴⁾ 말하고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혁명수호와 이단재판에서의 해석 및 결정이 바로 그 신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의 절대적·정통적 힘에 의해 후견·뒷받침되고 있다는 것. 그렇게 독점된 해석·결정의 힘이란, 부재하는 현전으로서 오직 문서의 서명으로만 있는 신과 한 몸이 된 그들 해석자·결정자의 유혈적인 모조구원력이며 거짓-풍문 속 메시아의 재생산력이다.

이를 달리 표시하는 것은 이명준이 6·25 직후 공산군 치하 서울에서 고문경찰관으로 일할 때이다. 남과 북 어디에서도 믿음의 근거를 찾지 못했던 그는 6·25라는 내전의 극한(동족상잔)을 통해 공산주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며, 그 방법이 고문경찰이었다. 잡혀온 자신의 친구 태식에게 그런 이명준이 말한다. “나는 그 썩어진 모랄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 말이거든. 그래서 범죄인이 되겠어. 또는 인민의 영웅이 되겠어. 마찬가지로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나를 구속하는 죄를 내 손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나면서부터 지고 나온다는 원죄 따위란 부르주아 취미가 아니겠어. 내 손으로 분명히 해낸 나의 죄. 그래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세.”²⁵⁾ 이 자기 죄구성의 논리·원리, 그것은 저 자아비판회적인 폭(권위)력의 궁극적인/첨예화된 형태이자 효과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소를 넘어, 그런 기소의 완성태로서, 투철한 결행력의 소유자로서 재

앞질러 선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이며 사람을 속여먹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11장 13절]

24) 최인훈, 『광장』(전집판), 73쪽.

25) 최인훈, 『廣場』, 166쪽. 고딕체 표기는 인용자.

탄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자기 손’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죄는, 주어진 피동적 원죄 따위와는 다른 것으로 정립되지만, 잡혀온 자들을 ‘인민의 적’으로 믿기 위해 가죽끈을 손에 잡은 이명준의 그 자기 손, 그 자기 정립의 근거에 모종의 ‘빙의’ 상태가 있다는 것, 그런 한에서 그의 자기 손과 자기 말이란 이미 ‘남의 손’이자 남의 말과 한 몸이 된 손이자 말이었다. 그런 사정은 고문의 순간에 드러난다.

태식의 핏빛은, 몇 년 전 바로 이 건물에서 형사의 주먹에 맞아서 흘렸던, 명준 자신의 피를 연상시켰다. 명준은 그때 형사가 하던 것처럼 태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또 한 번 얼굴을 갈겼다. 흡사 자기 몸에 그 형사가 옮겨왔던 것 같은 환각이 있었다. (인간이 인간의 육체를 학대하는 습관은 이처럼 몸에서 몸으로 전달되는 것이구나.) 몸의 길. 그는 발을 들어, 마루에 얹어진 태식의 아랫배를 차질렀다. 꼭 제 몸이 허수아비 놀 듯, 자기와 몸 사이에 짜증스런 괴리^{乖離}가 있었다. 그는 그 틈새를 없애기 위해 쉬지 않고 팔과 다리를 놀렸다.²⁶⁾

이명준을 구타했던 북쪽 말씨의 남한 형사, 그의 몸이 고문경찰 이명준의 몸으로 옮겨가 있는 상태, 그 일체화된 ‘몸의 길’이란 “법률의 밖에 있는 어떤 길”을 뚫으로써 “‘법률’의 밖에 있는 어떤 삶”²⁷⁾을 결정하는 자유재량적 폭력의 형태를 표시해준다. 그같은 고문경찰의 폭력 혹은 경찰적 폭(권·위)력이란 집행자와 그의 몸 사이에 있는 틈새를 감지하고 그 괴리와 걸足を 제거하는 자동적-주박적 회로 속에서 발현한다. 그런 괴리란 남한 고문형사의 몸과 이명준의 몸 간의 분리 상태를 뜻하며, 그런 틈새의 제거란 그 두 신체의 일체화를 향한 운동

26) 최인훈, 위의 책, 167쪽. “몸의 길”은 전집판에 삽입된 것임(134쪽). 이하 개정 내용의 쪽수는 생략함.

27) 최인훈, 『광장』(전집판), 61쪽. 이 구문들은 “법률의 밖”(『廣場』, 68쪽)에서 발원한 것임.

을 뜻한다. 바로 그런 운동의 과정에 이명준의 경찰적 폭력이 뿌리박고 있다. 그 이접운동의 정점에서 발화되는 고문경찰 이명준은 속엿말은 다음과 같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도 잔인할 수 있다. 아무렇지도 않다. 히틀러의 고문관^{拷問官}들도 이렇게 해낸 것일 테지. 스페인의 종교재판관들도 이렇게 해낸 것이지.”²⁸⁾ 고문경찰 이명준과 동렬에 놓여 있는 스페인 시골마을의 이단심문관, 그렇게 그 둘은 저 원산 자아비판회의 혁명검찰관과 함께, 겹으로, 교황-스탈린과의 이접운동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 겹-관계의 관한 비평을 좀 더 밀고나가게 하는 한 쌍의 비유 혹은 유추를 검토할 차례이다.

IV. 결론: “하나됨과 둘됨 사이의 평형” 혹은 질서의 적(敵)을 억지하는 힘의 형태

전쟁포로가 된 이후 중립국을 향해 가는 바다 위 타고르호에서 이명준은 “کمونی즘과 기독교——특히 가톨릭을 한 가지 정신의 소산으로 생각해 보는 아날로지^{[“완전한 좌우 상칭을 이루는 도형”; 전집판에서는 “쌍둥이 그림]”}를 수첩에 쓴다. “기독교의 도식: 1. 에덴 시대 2. 墮落^[타락] 3. 原罪^[원죄] 가운데 있는 인류 4. 구약 시대 여러 민족의 역사 5.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6. 십자가(사랑) 7. 告解聖事^[고해성사] 8. 法王^[법왕(교황)] 9. 바티칸궁 10. 천년왕국 / کمونی즘의 도식: 1. 원시공산사회 2. 사유제도의 발생 3. 자본주의 속의 인류 4. 노예, 봉건,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 5. 칼 맑스의 출현 6. 낫과 함마(증오) 7. 自我批判制度^[자아비판제도] 8. 스탈린 9. 크레믈린궁. 10. 문명공산사회.”²⁹⁾ 7항의 자아비판회-고해성사가 저 시골 이단심문관=혁명검찰관과 돌이면서 하나인 관계를 맺는 8항 스탈린-교황으로 이어지고 있

28) 최인훈, 『廣場』, 168쪽.

29) 최인훈, 위의 책, 189쪽. 강조는 인용자. 전집판에서는 “그리스도교”와 “스탈리니즘”으로 수정되었으며, 각각의 10항이 추가되었음.

다. 그것이 10항 공산사회-천년왕국의 건설을 위한 권력관계를, 그런 사회-왕국을 도래시킬 권위·정통성 레벨과 권력·결정 레벨 간의 이접운동적 관계를 구성한다. 그같은 관계적 힘들의 장은 각성한 이명준에게 다시금 ‘굿판’으로 인지된다: “컴뮤니스트 사회, 그 회당^(會堂) 가운데서 그들은 우상을 섬긴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다. 영감^(靈感)이 아니라 의식^(儀式)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 컴뮤니즘에 있어서의 마르틴 루터는 아직 없다. 크레믈린의 권위에 항거한 자들은 이단심문소에서 화형되었다. 권위는 아직도 튼튼하다.”³⁰⁾

매번 대리보충되는 코뮤니즘의 사회와 메시아 왕국, 자연·저지·대체·억제되는 그 사회-왕국이란 스탈린-교황주의의 현행적인 권위연관을 수호하기 위해 그렇게 ‘헛것’으로, 모조된 환상이자 우상으로, 항시적인 미래의 구원적 힘으로 섬김받도록 자리매김된다. 그런 헛것에의 봉공·현상사·정치, 주박 들린 그 푸닥거리의 굿판 위에서 공산주의는 진정한 적대의 구성에 거듭 실패하는 중이다. “그렇게 컴뮤니즘은 구체적이고 단적인 투쟁의 상대——적^(敵)을 인민에게 지시해 줄 수 없게 됐다.”³¹⁾ 스탈린-교황의 체제에서 적은 풍문 속의 메시아-공산주의를 위한, 달리 말해 모조구원적 적그리스도주의를 지배의 근원이자 동력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정되는바, 체제 내의 아나키·이단이 야말로 일급의 적,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적으로, “못된 균^(菌)^(전염)을 문혀가지고 온 자로서 일이 있을 적마다 끌려나와 참회해야 할” 죄인으로, “마치 동네 안에 살면서도 사람은 아닌 문둥이처럼”³²⁾ 포함/배제되는 (방역)의학적 격리의 위험군으로 설정된다. 그런 위험군에 대한 폴리차이적(경찰적/방역내치적) 조치직권이 다름 아닌 법 밖의 길(법 밖의 삶)에 물꼬를 내는 힘의 형태였음은 앞서 말한 것과 같다. 그럴 때 풍문 속의 구원^{Erlösung}은 헌옷을 벗겨 죄사함을 행하는 ‘히틀

30) 최인훈, 위의 책, 190쪽.

31) 최인훈, 위의 책, 191쪽.

32) 최인훈, 『광장』(전집판 1권), 151쪽.

리의 고문관' 곁에서 재량적 절멸^{Endlösung}의 계기이자 방법으로 기능한다. 스탈린-교황주의 혹은 메시아-공산주의의 그같은 폭(권·위)력, 그것의 운용과 존립을 원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스승과 생도, 큰스님과 제자 승려, 부모와 자녀, 왕과 신하, 사령관과 병사, 자본가와 노동자, 신과 피조물, 자연과 생명——이들 이미 둘이 된 것들은, 그 발생적 뿌리인 서로가 하나인 상태를 역사적 한계 안에서 상대적으로 약해진 수준에서지만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탓으로 끊임없는 헛갈림^["착란 아닌 착란"]에 빠진다. 그럭저럭 아슬아슬한 고삐를 다잡으면서 집단들은 혼돈을 모면한다. 운동은 평형이 유지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없는 평형(하나됨과 둘됨 사이의)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이 일어난다.³³⁾

이미 그렇게 둘·둘들·이항들이 그것들은 여전히 서로가 하나인 상태로서 유지되는 운동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 그렇기에 다름 아닌 질서를 구축해 갈 수 있다는 것. 말하자면 최인훈적인 이위일체들, 이위일체적인 것의 변양태들. 그것들을 기저에서 근거 짓는 평형화의 운동이란, 하나됨과 둘됨 사이의 평형이란, 둘인 상태와 하나인 상태 중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석권할 수 없게 되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쏠리지 않고 있는 힘의 균형상태이다. 힘이 한쪽으로 쏠리게 될 때, 예컨대 둘됨의 경계구획이 아래로부터 깨지게 될 때 반권위적인(혹은 신성모독적인) 무법상태가 된다.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때, 달리 예컨대 둘됨의 경계가 위로부터 깨어져 하나됨의 상태가 둘됨의 상태를 석권하게 될 때, 일방적인 혼육상태라는, 앞·진·리·인·륜의 생장 없음이라는, 생산 및 교환의 불가능 상태라는, 범신론의 세계라는, 신진대사 없는 죽은 자연이라는 폐쇄적 모나키(모노-아르케^[유일본질의 지배])의 상태

33) 최인훈, 『화두』 2권, 152쪽.

가 된다. 그런 한에서, 둘됨과 하나됨 간의 평형을 유지하는 운동이란 둘됨이라는 활력·실행·활성화의 상태와 이를 보장·증강·후견하는 하나됨의 상태가 맺는 관계, 둘됨과 하나됨 간의 상보적 이접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달리 새겨질 수 있다. 질문은 다음과 같이 된다. 저자아비판회, 혁명재판소=이단심문소의 지도원 선생이란 누구인가, 그 힘은 어떤 것인가. 천적 지도원 선생은 다름 아닌 부·왕·신——아버이 수령, 영도자, 현인신^{現人神}(제국 일본의 천황)을 본뜬 ‘김일성 천황’——의 외아들·신하·사도·피조물이며, 스페인 시골마을과 로마에 똑같이 임하고 있는 신 아래에서, 그 신과 이접된 이위일체의 상태로, 그 신의 섭리·섭정·안배·질서화를 대행하는 힘을 표시한다.

스페인 시골의 이단심문관과 로마 교황, 원산의 혁명검찰관과 스텔린 교황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는 신, 그 신의 섭리 혹은 품문 속 메시아-공산주의의 섭리를 달리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닌 말·말씀, 대언되는 그 로고스·그리스도의 형질과 관련해서이다. 생선이 보관됐던 배 밑바닥에 숨어 율복한 이명준이 『노동신문』 편집부의 일을 맡았을 때, 그는 당원들의 말 속에서 애써 외워지고 섬겨지던 정치신앙서 한 권을, “『불세비키 당시^{黨史}』”라는 신적인 문서 한 두루마리를 읽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찍이 위대한 레닌 동무는 제○차 당대회에서 말하기를…….’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상^{事象}의 원형을 또박 또박 ‘당사’ 속에서 발견하고, 그에 대한 답안 역시도 그 속에서 찾아내는 것. 목사가 성경책을 펴들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사도행전……’ 하는 그런 식이었다.”³⁴⁾ 모든 일의 근본으로서 선행·선결되고 있는 모범답안, 신적인 섭리의 검정^{檢定} 교과서. 『당사』는 저 ‘역사의 신’이 속화된 형식으로서, 두루 이미 선재^{先在}해 있는 신과 한 몸이 된 사제·당원의 철칙으로서, 신의 뜻과 의지를 대신하는 매개자들의 행동규범으로서 자리매김된다. 그같은 『당사』에 뿌리박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들 사도적 매개역들에 의해 혁명은 검찰되고 이단은 심

34) 최인훈, 『廣場』, 125쪽. 전집판에서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의 본[本]”으로 수정됨.

문되는바, 그들 신체제의 새 로고스는 “신념이 아니라 신념의 품문”으로 가동되며 “혁명이 아니라 혁명의 모방”이었다. 『당사』를 통해 “만들어진 언어의 질^質”[“만들어진 말의 됴됨이”(전집판)], 그 속에서 저 역사의 섭리라는 것이 다름 아닌 적이라는 사실이 은폐되며 적그리스도적인 적의 발현이 분식됨으로써 지배의 권위관계가 구축/구출된다. 적그리스도적 섭리, 그 적의 섭정을 대행해온 『당사』, 당이라는 말씀·로고스의 역사·사역. “‘당’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한숨지을 테니 너희들은 생활하지 말고 복창만 하라는 겁니다. ‘일찍이 위대한 레닌 동무는 말하기를……’ ‘일찍이 위대한 스탈린 동무는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위대한 동무들에 의하여 일찍이 말해져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도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³⁵⁾ 벌써 이미 선행하고 선결하는 위대한 로고스가 선재해 있으므로, 필요한 것은 말의 구호화, 그런 구호의 복창과 갈채, 그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 타락되는 일, 유순한 양떼가 되는 일이다. “위대한 동무들은 어떤 결정된 진리만을 믿은 게 아니라 진리는 더 고치는 것이 용서 안 될 만큼 최종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태도까지 믿은 것”³⁶⁾이었음도, 당의 『당사』는 ‘진리^[알레테이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 32]는 말씀을 전용하여, 진리로 하여금 『당사』의 섭리에 복무하게 하고, 그렇게 『당사』의 신적인 권위·후광 아래서 성장한 진리로 하여금 법 밖의 길에 물꼬를 내게 했다. 저 자아비판회란 그런 진리에 의한 판결, 『당사』로 속화된 신의 법정, 그 법정의 구체적 구현체였다.

그것은 최인훈의 “무의식 속에서는 제한 없는 무급심^{無級審}으로, 상시 계류 상태인 재판”으로 감지됐던바, 그는 “생애를 두고 그 재판의 계류자요 피고로 자신을 느꼈다. 무의식 속으로 관할이 옮겨진 재판이었으므로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열릴 수 있었고”, 그런 한에서 “시효

35) 최인훈, 위의 책, 126쪽; 130쪽.

36) 최인훈, 『광장』(전집판), 105쪽.

자체가 없는 재판”이었다. 진리의 이름 아래 영구적으로 속개^{續開} 중인, 무한한, 궁극적 심급이 없는, “최종심 없는 법정의 증인이자 피고.”³⁷⁾ 혁명검찰관=이단심문관과, 그들 너머 그같은 검찰·심문에 초과적으로 주박 들린 자기, 그러하기에 최종심 없이 재량적으로 반복될 수 있게 되는 법정. 그런 상보적 법의 연관·연쇄에 의해 인민은 그가 누구든 영원한 유죄구성에 속박될 수 있다. 필요한 문답 하나는 다음과 같이 된다: 그같은 법 밖의 길, 법 바깥의 삶의 상태를 경감시키는 다른 길과 삶을 두고 최인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최종심이라는 것을 오지 않을(와서는 안 될) 미래의 일이 되도록 대리보충시키는 힘이 정지되는 시공간으로서, 그 무급심의 폭(권·위)력이 무위로 돌려지는 “심판의 날”로서 표현된다. 그러하되 최후심판의 그날, “그 하루만 빼고는 역사 달력의 모든 요일은 찌뿌드드하고, 한스럽고, 할 수 없이 넘어가는 그런 매일일 수밖에 없”³⁸⁾는바, 최인훈은 “이 정당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아주 그것의 일부가 되는 일은 없이 견디는 저마다의 생활의 기술을 지니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생활자들의 화두^{話頭}인 셈”³⁹⁾이라고 말한다. 그 견딤의 기술, ‘정당하지 않은’ 체제의 틈니에 완전히 물려 들지 않는 생활의 기술이란, 『광장』의 말을 빌리면, “風聞^{풍문}에 만족치 않고 늘 現場^{현장}에 있으려고 한 태도”⁴⁰⁾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그 ‘현장’이라는 것을 다름 아닌 ‘풍문 속의 메시아’가 ‘적’으로 준별되고 있는 시공간으로 새겨 놓게 된다. 그 시공간이 곧 최인훈이 말하는 ‘광장’의 조건이다. 그 광장=현장에서의 적대 구성과 관계된 문장 하나를 인용하는 것으로 이 글의 결론을 대신해 놓고자 한다: “風聞에 만족치 않고 現場을 찾아갈 때 우리는 운명을 만납니다. 운명을 만나는 자리를 광장이라 합시다.”⁴¹⁾

37) 최인훈, 『화두』 2권, 84쪽; 394쪽.

38) 최인훈, 위의 책, 360쪽.

39) 최인훈, 위의 책, 16쪽.

40) 최인훈, 「추기追記」, 『廣場』, 5쪽.

41) 최인훈, 「작자의 말」, 『廣場』, 1쪽.

참고문헌

1. 텍스트

- 崔仁勳, 『廣場』, 정향사, 1961.
_____, 「總督의 소리 II」, 『월간 중앙』 1968년 4월호.
_____, 「總督의 소리 3」, 『창작과비평』 1968년 겨울호
최인훈, 『화두』 1권, 문학과지성사, 2008.
_____, 『화두』 2권, 문학과지성사, 2008.
_____, 『광장 / 구운몽』, 문학과지성사, 1976
성서 『개역한글판』
성서 『공동번역』

2. 논문 및 단행본

- 김윤식, 「유죄 판결과 결백 증명의 내력: 최인훈의 장편소설 『화두』」, 『작가와의 대화』, 파주: 문학동네, 1996, 9~32쪽
김우창, 「남북조 시대의 예술가의 초상: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태동 편, 『최인훈』, 서강대 출판부, 1999, pp. 155~167쪽
손유경, 「혁명과 문장」, 『민족문학사연구』 63집, 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323~347쪽.
조시정,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러시아-소련 경험: 『화두』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문화』 10집,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2011, 211~247쪽.
차미령,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정치성의 의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2010.
칼 슈미트, 『정치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김항 옮김, 그린비, 2010.쪽.

Abstract

About Choi In-hun's Revolutionary Prosecution and Inquisition

Yoon, Inro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Research Professor)

This article analyzes Choi In-hun's(1934-2018) political philosophy through his experiences in North Korea during his adolescence, which are presented in Whadoo(話頭)(1994) and The Square(1961). Here, political philosophy, to be precise, refers to theocracy, that is, the synthesis of the 'political' and 'theological'. Choi In-hun's theory of revolutionary prosecution=Inquisition, rooted in his experience of 'self-criticism' in North Korea(chapter 1), is set as the specific subject of analysis(chapter 2). This trans-boundary theme, which has not been well addressed in previous studies, is a political-theological problem that penetrates the Whadoo at the end of Choi In-hun's literature and the Square at the beginning of Choi In-hun. Specifically, this is being developed as a criticism of 'Messiah-communism in rumors' and Antichrist(Chapter 3). As the source of such criticism, we will analyze the unified relationship between the distinct binomials that Choi In-hun speaks of, such as gods and apostles, kings and ministers, popes and inquisitors, teachers and disciples, and commanders and soldiers(Chapter 4).

Keywords: Self-Criticism, Rumors, Messiah-Communism, Antichrist, Stalin-Pope, Judgment Day.

논문 투고일: 2023년 07월 10일
심사 완료일: 2023년 09월 09일
게재 확정일: 2023년 10월 01일